

도서(島嶼)문화의 관점에서 본 제주와 류큐의 주거비교 A comparison of Residence between Jeju and Ryukyu by a view of Islands Culture

김태일(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들어가며

건축(물)의 근원은 原始時代부터 인간은 먹을 것을 찾기 위하여 이동하며 수렵생활하면서 야생동물들로부터 피하기 위한 동굴 등의 일시적인 보호처(保護處 :shelter)가 최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착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이고 계획적인 住居가 발생되었으며, 기후와 지역, 사회적 특성에 따라 인조환경(人造環境)의 형태로서 다양한 주거문화(건축문화)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아무리 단순한 건물이라도 그것은 물체나 구조체 이상의 것이며, 그것들은 하나의 제도(制度)이며, 기본적인 문화(文化)적 현상(現象)인 것이다.

주거문화는 지리적 혹은 풍토적 조건 속에서 보다 나은 생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형성된 것이며 나아가 사회적 혹은 정치적 조건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형성되어 온 사람들의 생활역사이자 삶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사회변화 등에 있어서 국가의 속성상 서구에 대한 다원주의적 설명으로는 한계성이 있으나 한국과 일본의 경우 시민사회형성과 민주주의 발달이 늦어졌다는 점, 특히 유교주의적 문화풍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한국과 일본사회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衣・食・住의 생활문화 그 자체에 있어서도 한국과 일본의 유사성을 찾을 수가 있다¹⁾.

특히 제주와 오키나와는 과거부터 오랜 교역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도서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문화적 현상 즉 음식과 신앙 등 생활양식과 주거양식 등에 있어서 적지 않은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제주와 오키나와는 역사적으로도 탐라국과 류큐왕국으로서의 독립된 국가형태를 유지하여 왔고 근대사에서는 제주의 경우 1948년 4월3일 발생한 4·3사건으로 인한 수많은 민간인 희생의 경험이 있고, 오키나와의 경우도 태평양전쟁 당시 민간인의 희생이 있었던 점등 역사적으로도 유사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특징이자 공통점은 도서(島嶼)지역이라는 점이다. 거세게 불어대는 바람과 거칠고 척박한 땅, 거친 바다에 둘러싸인 섬의 지리적 특징은 생산방식과 생활방식, 그리고 주거방식에 있어서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제주와 오키나와의 주거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시사하는 점이 많을 것이다.

2. 제주와 오키나와의 주거문화 비교

2-1 주거형태에 영향을 주는 요소

주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생활 그 자체에 큰 영향을 주는 주거부분이

1) 김태일, 「비교문화 관점에서 본 주거문화의 정체성」 한국인의 삶과 미래주택,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p122

라고 할 수 있다. 주거는 건축의 기원에 있어서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원은 혹은 토착 형태로서의 기본적인 건축물이다. 그것들은 큰 으로서의 결정과 선택, 그리고 사물을 행하는 특수한 방법을 구현하고 있는 큰유적으로 설계된 것이고, 또한 모든 가능한 대안중에서 선택된 것이다.

따라서, 인위적 환경은 하나의 특정한 대중문화(건조환경 양식=스타일)를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마치 이것은 의복이나 음식과 같은 대중문화(생활양식==주거형태=스타일)와도 같은 것이다.

어떠한 양식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가치관, 표준, 기준 등이 요구되는데, 그것들은 도식에 의하여 구현된다. 결국 인조환경의 양식은 이와 같은 도식과 그것들이 가지는 질서(秩序, 공간적 질서)가 반영됨으로서 부호화)되어진 문화형태(양식=스타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모스 라포포트는 주거형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들을 물리적인 요소와 사회적인 요소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물리적인 요소로는 기후와 은신처의 필요성, 재료와 공법, 대지를 제시하였고 사회적인 요소로는 경제와 방어, 종교 등을 제시하였다²⁾. 본고에서는 이들 두 요소를 중심으로 제주와 오끼나와의 주거문화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2-2 취락의 입지조건

제주의 지형적인 특성상 취락형성은 작은 산들이 육지처럼 많지 않아 배산임수의 원칙보다는 풍수지리적인 요소 즉 좌청룡(左靑龍), 우백호(右白虎)의 분지형 지세(盆地形 地勢)와 좌향(坐向)을 살피긴 하되 오히려 물을 얻기 어려운 지질적(地質的) 특성상 기본적인 식수문제의 해결, 그리고 척박한 환경속에서 보다 생산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점 등이 마을의 입지를 결정하는 중요인자(因子)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제주지역의 마을 분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의 취락이 중산간³⁾ 아래에 집중되어 있다(그림1). 이는 취락형성에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인 식수원이 되는 용출수가 해안을 따라 분출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안지역에 취락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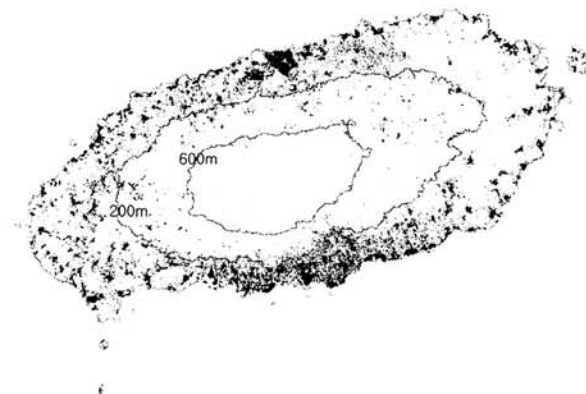


그림 10. 제주도의 취락분포

이러한 조건 때문에 취락과 경작지와 관계가 육지부와 다른 형태를 다르게 나타난다. 즉

2) 아모스 라포포트, 이규목 역, 주거형태와 문화, 열화당, 1985, p36

3) 표고 200m-600m사이의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허파와 같은 기능을 하는 제주환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육지부의 마을은 촌락주위를 개인텃밭과 개인경지, 배후지의 순으로 둘러싸여 있는 반면 제주해안 마을은 주거지를 중심으로 바다에 접하면서 개인텃밭은 주거공간에 속하고 개인경지와 목장이 둘러싸는 육지부와 다른 마을공간구성을 설명하고 있다⁴⁾(그림 2).

한편, 泉 靖一(1972)는 중산간마을과 해안마을의 차이점에 대하여 중산간 마을은 경지가 취락을 둘러싸고 있는 반면 해안마을은 경지가 분리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중산간 마을과 구별됨을 강조하였다⁵⁾(그림 3). 특히 해안마을의 경우 농번기(農繁期)와 어번기(漁繁期)가 거의 동시에 집중되기 때문에 중산간마을 보다는 어장과 경지를 마을과 밀접하게 배치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목장이 해안마을로 부터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고 가축은 중산간마을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생산성 확보의 문제 때문에 경지(耕地)가 촌락을 둘러싸는 접속형의 산촌(山村)과는 달리 해안마을은 촌락과 경지(耕地)의 분리형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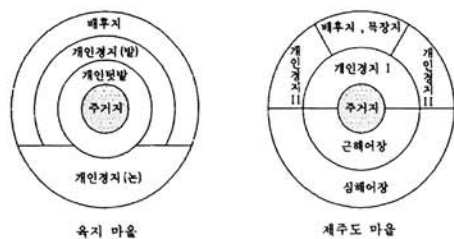


그림 2. 육지마을과 제주마을의 공간구조 개념
(출처: 김석윤(1999), 19세기 제주도 민가의 변용과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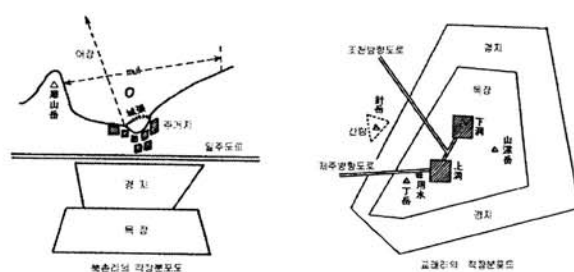


그림 3. 해안마을(왼쪽)과 중산간마을(오른쪽)의 공간구조 개념
(출처: 泉 靖一(1972), 泉靖一著作集1 フィールド・ワークの記録(1), 讀賣新聞社)

반면 오끼나와는 제주와 달리 현무, 청룡, 주작, 백호의 4신을 중심으로 하는 풍수⁶⁾의 영향을 크게 받아 묘지풍수사상과 함께 부지풍수사상이 상당히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본적으로 부지풍수사상은 묘지풍수사상과 같은 맥락이지만 다른 점은 묘지와 주택과는 약간 차이를 보이는데 지형, 지질에 의한 판단요소가 추가된다는 점이다. 즉 지형은 「후고전저(後高前低)」 즉 뒷쪽 높고 앞쪽은 낮은 장소의 지형을 좋은 땅으로 여겼으며 지질은 지나치게 습하지 않고 지나치게 마르지 않는 땅을 좋은 부지로 여겼다. 본고의 후반부에 언급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오끼나와의 풍수사상의 영향은 취락개발과 농지개혁 실시⁷⁾에도 적용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둑판형 취락으로 취락의 이상형으로 받아 들였다(그림 4).

2-3 택지분할형태

제주의 지형적 특성과 기후 조건 등으로 인한 자유로운 배치 때문에 부지를 결정한 후 건물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옥이 놓일 위치를 먼저 결정한 후 부지의 경계를 결정하게 됨으로서 부지의 형태 또한 자유로운 형태를 취하고 있다(그림 5, 그림 6).

4) 김석윤(1996), 19세기 제주도 민가의 변용과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33-34.

5) 泉 靖一(1972), 泉靖一著作集1 フィールド・ワークの記録(1), 讀賣新聞社, pp.163-168.

6) 오끼나와에서는 フンシー라고 한다.

7) 제상(宰相)으로 이름을 떨쳤던 蔡溫(さいおん)이 풍수에 근거하여 취락의 이동과 하천공사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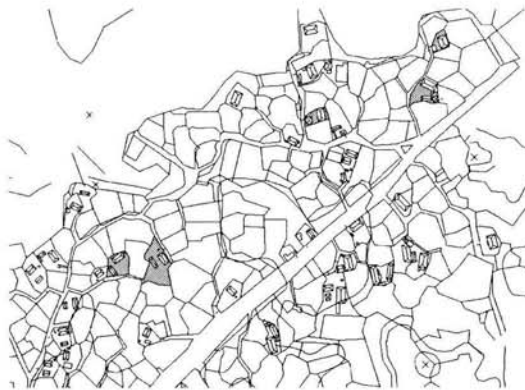


그림 14 제주건축의 부지와 가옥배치형태(제주시 협재마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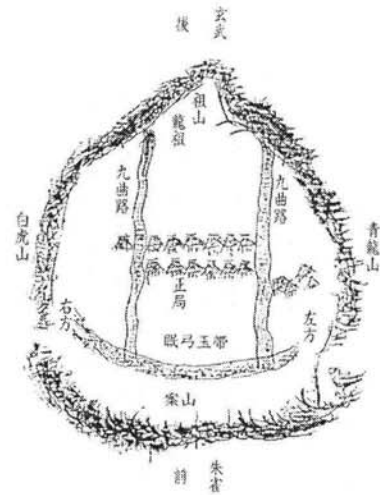


그림 13 좌청룡 우백호의 풍수지리에 입각한 오끼나와 취락도. 일렬로 정리된 취락의 형태가 특징적이다.
(출처: 与儀兼徳의 「風水書」의 集落図)



그림 15 마을 어귀에서 바라본 취락전경(출처: 제주도(1996), 제주 100년: 道昇格 50周年 記念寫眞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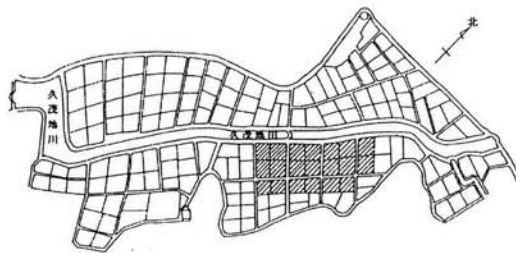


그림 16. 1735년 조성된 오끼나와 久茂地村 부지그림
(출처: 坂本磐雄, 沖縄の集落景観, 九州大学出版会, 1997, p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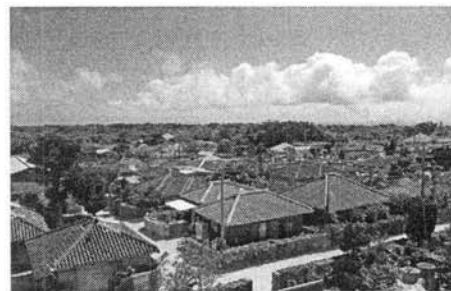


그림 17. 竹富島の 취락 전경(인용자료)

이에 반해 오끼나와의 경우 택지분할은 정치적 배경에 탄생하였다는 점에서 제주의 택지분할과는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다(그림 7, 그림8). 즉 오끼나와의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택지의 분할형태는 바둑판형 택지⁸⁾의 비율이 높은 편인데 이는 지리학적 혹은 지형학적 원인보다는 1737년부터 시작된 정기토지분할제(定期地割制)라는 토지의 통제가 택지분할의 형태를 규제하였고 결과적으로 바둑판형 택지를 만들어지게 되었고⁹⁾ 택지의 규모 역시 신분 에 따라 규제를 받아 부지와 건물의 규모에 제약을 받았는데(표1), 1737년을 기준으로 취락

8) 규칙적 택지구획(規則的宅地割)라고 부른다. 坂本磐雄, 沖縄の集落景観, 九州大学出版会, 1997, p96

9) 坂本磐雄, 沖縄の集落景観, 九州大学出版会, 1997, p103

조성 형식이 확연히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737년 이후 정기토지분할제(定期地割制)에 의해 조성된 취락에 초점을 두고 제주와 오끼나와 취락의 특징을 비교정리하기로 한다.

흥미있는 점은 부지의 형식에 있어서 신분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부지의 형태를 장방형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정방형으로 조성할 경우 부지정면의 가로와 세로를 구별할 필요 없이 조성 및 유지의 편리성 때문이다¹⁰⁾.

이는 신분에 따라 부지와 건축의 규모에 어느 정도의 구별은 있었으나 큰 차별이 없고 특히 거의 동일한 주거평면에서 생활하는 동질성, 균일성을 갖는 제주의 주거문화와는 크게 구별되는 부분이다. 아울러 택지분할형식에 있어서도 인위적인 정방형의 부지형태를 갖는 오끼

표 37. 1737년의 부지 및 건물에 관한 규제(단위:間은 6.5尺)

(출처: 坂本磐雄、沖縄の集落景観、九州大学出版会、1997、p 104)

계급 \ 항목	부지규제, 한변의 길이	건물규제, 1실당의 다다미수
總地頭 ¹¹⁾	15 ~ 16間角	22.5帖
脇地頭 ¹²⁾	12 ~ 13間角	16帖
平土	10間角	8帖
百姓(平民) ¹³⁾	9間角	6帖
田舎百姓(平民) ¹⁴⁾	9間角	주침실 3×4間 부엌 2×3間

나와와 달리 자유스러운 배치와 불특정한 부지형태의 제주와는 크게 구별되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오끼나와의 경우 지리적, 지형적 요인보다는 사회적, 정치적 요인의 작용에서 기인한 것이며 반면 제주는 지리적, 지형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주거형태 결정의 근본적인 요인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4 외부공간의 특징

한라산이 중앙에 놓인 제주도는 지형적 특성상 육지와 달리 「북좌남향」의 입지조건을 지키기 어렵다. 게다가 지형적인 조건에 따라 자연스럽게 개설된 도로에 의해 건축물도 자연스럽게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¹⁵⁾ 그림 9는 도로 방향에 따른 제주도의 가옥 좌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동-서 혹은 남북으로 개설된 도로의 조건에 따라 안거리(안채, 内棟)와 밖거리(바깥채, 外棟)의 위치가 변하게 되는데 이는 채광, 통풍, 그리고 개방감 등의 조건을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제주도 가옥 좌향이 자유로우며 제주건축을 특징짓는 요소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인 건물 배치는 풍수지리에 의한 배산임수(背山臨水), 사국형성(四局形成)을 따르면서도 지형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평지 위에 안거리와 밖거리가 대칭적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10) 坂本磐雄、沖縄の集落景観、九州大学出版会、1997、p 105

11) 오끼나와 계급조직의 하나로 상급토족(上級土族)에 해당되며 정일품(正一品)에 해당

12) 오끼나와 계급조직의 하나로 상급토족(上級土族)에 해당되며 정이품(正二品)에서 정사품(正四品)에 해당

13) 오끼나와 계급조직의 하나로 평민에 해당되지만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평민

14) 오끼나와 계급조직의 하나로 평민에 해당되지만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평민

15) 제주도(1993), 제주도지 제1권, pp.494-4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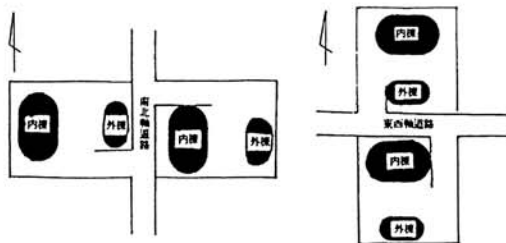


그림 9. 제주건축의 좌향(왼쪽 : 서좌동향 오른쪽 : 북좌
남향)(출처: 제주도(1993), 제주도지 제1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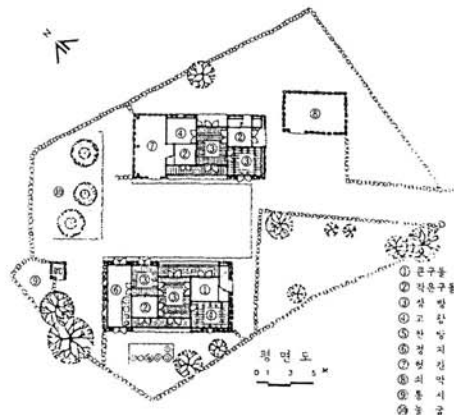


그림 19. 제주 주거의 배치 및 평면(삼양 강운봉
가옥)(출처: 제주도, 제주도민속자료, 1987, p186)

잡고 부지의 경계가 결정되는 자유로운 배치를 하기 때문에 장방형의 부지형태를 가진 오끼나와의 배치형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그림 10). 또한 제주 건축의 대지가 주위지형보다 낮은 곳이 많은 것은 풍수지리(風水地理)의 이론형식인 장풍(藏風), 득수(得水), 형국론(形局論)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며 이 역시 지질학적 특성상 투수성이 높고 강한 바람이 부는 제주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주건축의 외부공간은 마당을 중심으로 가족적 관계를 견지하면서도 철저히 세대구분을 하는 안거리와 밖거리의 공간적 계층화를 이루고 있는데, 진입방법에 있어서 『올레(유도공간)』 『올레목(전이공간)』 『안마당(주공간)』이라는 삼분할적 공간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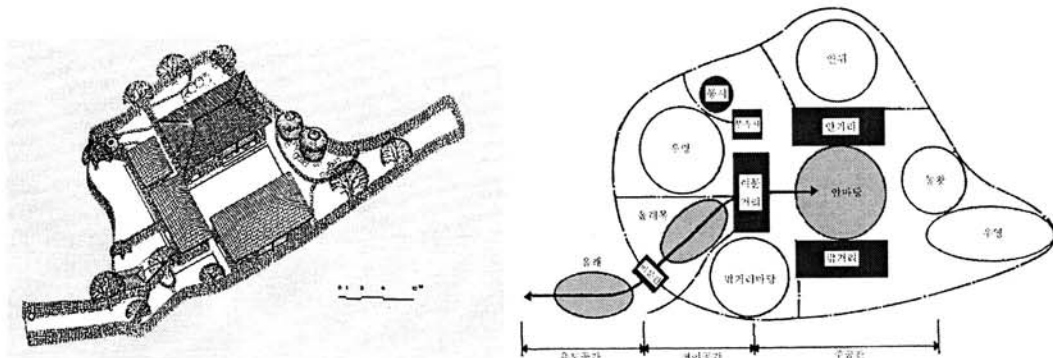


그림 20. 제주전통 건축의 외부공간구성과 진입공간의 의미
(출처 : 제주도(1987), 제주건축의 향토성 개념정립과 보급 확대방안 연구, p.18,p49)

그러나 오끼나와의 가옥배치는 제주의 그것과 전혀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다. 건물배치는 출입문의 축(軸)상에 주건물(主屋)을 놓이게 하고 주건물과 차폐담 역할을 하는 「힌퐁(ヒンブン)」의 사이에 전정(前庭)과 같은 기능을 하는 중정(中庭)형태의 공간이 놓이게 되며 주 건물의 서쪽에 축사, 수납창고를 두고 북서쪽의 구석에 「豚舍(フル)」가 배치되는 기본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다(그림 12).

이와 같은 택지의 형태와 건물배치형식의 차이로 인해 제주와 오끼나와 취락경관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는 점 역시 큰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주요 외부공간의 기능 및 유사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 할수 있다.

(1)올레와 힌푼(ヒンブン)

주택에 출입하는 진입로로서 긴 「올레」를 갖는 주택을 격을 갖춘 집으로 평한다. 폭은 7~10척(尺) 정도이고 길이는 30~50척(尺)이며 형태도 I형, L형, S형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어느 경우 이진 끝이 꺾이거나 고저차를 두거나 「먼문간」 혹은 「이문간」을 설치하는 등으로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배치된다. 따라서 제주마을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올레는 외부와 내부의 연결 통로이자 차폐성을 갖는데 이는 공간적, 시각적 열림과 닫힘의 기능을 갖는 전통주거의 특징 요소이기도 하다(그림 13).

올레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으나 밀집취락형태에서 풍수지리에 의한 대지선정이 된 후 진입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설명되기도 하고 잡귀는 직진성이라는 주술적 인습이나 기후요인이 생성 원인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올레의 양측은 석담을 5~7척 높이로 쌓이는데 이 담이 시작되는 길의 모퉁이를 「어귀」라 부르고 여기에는 대단히 큰 돌을 쌓는데 이 돌을 「어귀돌」이라 한다. 「어귀돌」 옆에는 집주인이 말을 탈 때 디딤돌인 「말판」이 놓이며 이것은 주택의 영역표시도 된다. 대문이 없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약간 안쪽으로 대문의 대용인 「정낭」이 「정주목」에 끼워지는데 이 형식은 목축 위주인 중산간 취락에 많다.

「올레」의 끝이 꺾인 곳이 「올레목」인데 이곳이 꺾임으로 해서 집안이 직접 보이지 않게 되고 공사(公私)공간의 절절점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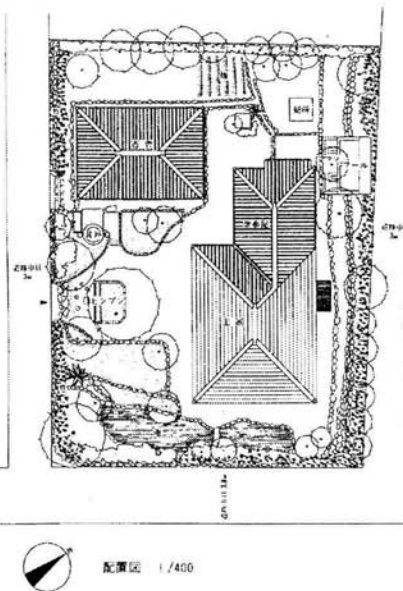


그림 21. 오끼나와 건축의 좌향(출처:建築思潮研究所、南島・沖縄の建築文化、建築資料研究社、1991,p191)



그림 22. 제주마을에서 볼수 있는 다양한 올레는 외부와 내부의 연결 통로이자 차폐성을 갖는 전통주거를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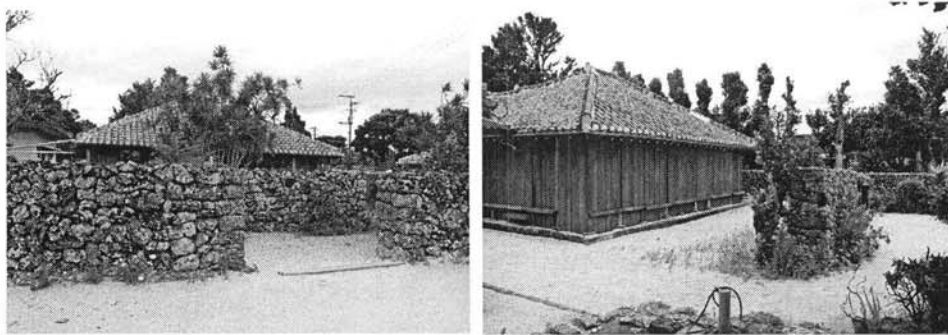


그림 23. 오끼나와 힌퐁(ヒンブン)은 내부와 외부의 공간적 차폐성 보다는 내부공간이 들여다보이지 않을 정도의 시각적 차폐성을 갖는다.

오끼나와 전통주거에서 출입구에 차폐성을 갖는 구조물이 「힌퐁(ヒンブン)」으로 불리는 차폐벽이다. 「힌퐁(ヒンブン)」은 원래 중국에서 유입되었으나 지역화되어 다양한 형태로 설치되었는데 최근에는 재료를 대나무, 산호, 콘크리트 블록 등을 사용하는 등 더욱 다양화 현대화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제주전통주거는 올레와 이문간 등의 수법으로 외부와 내부의 차폐성을 높인 반면 오끼나와 힌퐁(ヒンブン)은 내부와 외부의 공간적 차폐성 보다는 내부공간이 들여다보이지 않을 정도의 시각적 차폐성을 갖는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그림 14).

(2)안마당과 전정(前庭), 그리고 안뒤와 후정(後庭)

안마당은 안거리와 밖거리의 배치에 의하여 형성되는 주요 공간이며, 이 마당을 매개체로 하여 안거리와 밖거리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동통로의 기능, 농산물을 말리는 작업공간 기능, 관혼상제의 행사 기능 등 다기능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안뒤는 안거리의 뒤뜰에 놓여진 공간으로 후정(後庭)에 해당되는 공간으로 안거리의 상방 뒷문이나 부엌을 통하여 출입하며 여성들의 공간으로 또한 장독대가 놓인 공간으로 집안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 주생활의 주요한 공간이기도 하다. 특히 안뒤 공간은 올담을 쌓고 식재를 하여 외부로부터 격리되고 폐쇄적인 곳으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음(陰)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안마당은 활동적인 양(陽)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11 참조).

그러나 개방적, 활동적공간인 안마당, 안정적 폐쇄적인 안뒤로 구성되는 제주전통주거의 외부공간과는 달리 오끼나와는 정방형의 부지주변을 후쿠기(福木)¹⁶⁾ 식재하여 둘러싸고 중앙에 주건물을 배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외부공간 형성이 폐쇄적인 공간을 만들어 내기 어렵다. 주건물과 「힌퐁(ヒンブン)」의 사이가 전정(前庭)에 해당되는 공간이고 주건물 후면과 부지경계사이가 후정(後庭)에 해당되는데 전정(前庭)은 작업 혹은 제사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후정(後庭)은 「豚舎(フル)」를 두거나 일상적으로 먹는 야채밭으로 사용하기도 한다(그림 12 참조).

(3)우영과 畑(はたけ)

올담안의 「안거리」 혹은 「밖거리」의 측면, 전후면에 위치하여 낮은 담으로 둘러쳐 만들어진 별도의 작은 공간으로 채소 재배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제주전통주거는 육지와

16) 오끼나와에서는 부지주변을 따라 식재되는 나무로 방풍(防風), 방화림(防火林)으로 사용된다.

는 달리 집터가 먼저 자리잡고 난후 울타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부지의 형태가 부정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울안의 공간은 애매한 여분의 공간, 자투리 공간이 발생되기 마련인데 이러한 여분의 공간에 채소 등을 심어 부식을 자급하는 생산 공간으로 활용하였는데 이곳을 「우영」이라 한다(그림 11 참조). 혹은 「우잣」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밭으로 쓰이지 않는 허드래 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외부의 수장공간이 되는 곳을 말하는데, 규모가 크고 경작지로 이용되는 경우는 「우영밭」으로 부른다.

정방형의 부지위에 건물배치되는 오끼나와전통주거의 공간구조상 주건물 후면과 부지경계사이의 후정(後庭)에 정돈된 일정공간의 야채밭을 가꾸기도 하고 주건물의 측면부분에 가꾸기도 한다(그림 12 참조).

(4)고팡과 高倉

곡식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일반적으로 「큰구들」(안방)에 위치하고 있다.

「고팡」은 주로 곡물을 저장하는 수장공간으로 큰 구들(안방)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곡식을 보관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고팡」의 바닥은 흙으로 마감되 벽은 흙벽이며 천정은 노출반자이다.

환기를 위한 한 두개의 작은 창을 내고 상방에서 통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상방을 사이에 두고 안방에 접하여 위치한 이유는 평면설계상 합리적인 분할식 방법에 의한 간(間) 나누기를 하기 위한 것이거나 혹은 소농으로의 어려운 생활환경에서 식량의 비축을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제주무속의 가내신의 위계상 무속신 「안칠성」이 고팡을 지배하며 제사때에는 이 신을 위하여 「고팡상」을 차린다.

오끼나와의 경우 주건물내가 아니라 부지내 한구석에 高倉을 두고 있다.

(5)통시와 豚舎(フ-ル)

제주의 전통건축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뒷간으로 화장실에 해당되는 공간이다.

제주 전통건축에서 찾아 볼수 있는 통시는 제주만의 독특한 주거문화의 요소중의 하나이다. 통시는 일반적으로 안거리의 한쪽 옆을 돌아선 곳에 설치되었는데 이는 통시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은밀한 사적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통시의 구조는 지면에서 2,3단정도 높게 하여 2개의 긴돌을 걸쳐두었고 통시의 바닥은 마당보다 낮게 되어 있어서 배설물이 밖으로 흘러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여기에 돼지를 사육하였는데 단순히 사람의 배설물을 처리하는 기능 이외에도 돼지사육을 통해 음식물 등의 잔밥을 처리하고 나아가 집안의 경조사때에는 돼지를 잡아 행사를 치루는 등 처리와 생산, 그리고 집안의 재산 증식이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 중요한 공간이기도 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통시에서 만들어지는 똥 거름은 농사에 사용되는 유기질 거름의 생산공간으로서 중요한 기능도 갖고 있기도 하다.

제주도의 무속은 신의 위계에 따라 주거내에 각기 영역이 정해져 있는데 통시를 관장하는 신으로 칙도부인이 있다.

제주전통주거와 오끼나와 전통주거의 유사성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중의 하나가 바로 통시문화이다. 오끼나와 통시는 중국에서 전해진 것으로 전해지는 豚舎(フル)로서 제주의 통시와 마찬가지로 돼지우리와 변소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 다만 중국의 통시는 2층구조로 되어 있어서 사람의 배설은 위에서 이루어지고 돼지는 아래에서 사육되지만 오끼나와의 경우 사람의 배설이 옆으로 흘러들어가는 수평구조라는 점에서 다르다. 이러한 통시구조는 형태는 다르지만 제주의 통시와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그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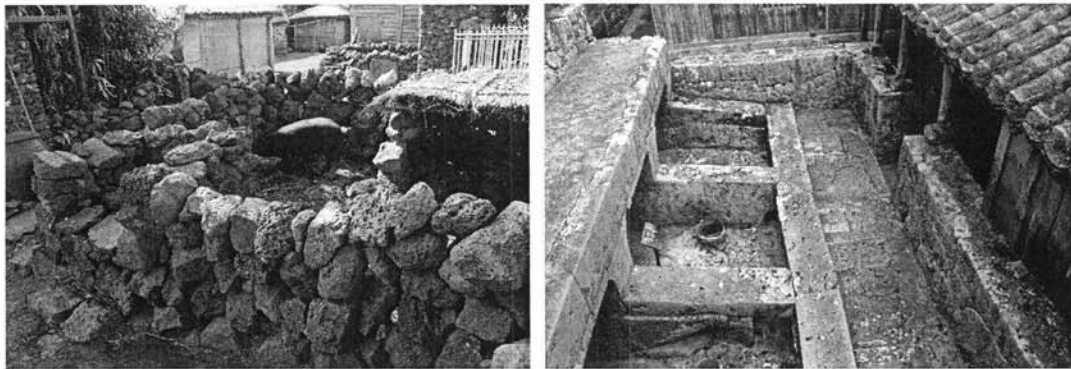


그림 24 제주의 통시(왼쪽)와 오끼나와의 통시(오른쪽)는 축조방법에 차이는 있으나 설치위치와 사용구조상의 유사성을 갖고 있다.

2-5 내부공간의 특징

외부공간에서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지만 생활과 밀접한 내부공간에서의 유사성 역시 적지 않다.

첫째, 평면구성이다.

제주도 주택의 내부공간은 결합(結合)방식에 의하여 구성되는 육지부의 주택평면과는 달리 분할(分割)방식에 의하여 구성되는데 이때 「큰구들」(큰방)과 「고팡」이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이 특징이다. 즉 공동생활체의 중심적인 공적공간인 「상방(마루)」을 중심으로 전면(前面)으로는 난간을 거쳐 전정(前庭)인 「마당」으로 이어지고 후면(後面)으로는 후정(後庭)에 해당되는 「안뒤」로 이어지며, 좌우로는 사적공간인 「큰구들」(큰방)과 「고팡」, 그리고 「작은 구들」(작은방), 「정지」(부엌)와 「챗방」으로 연결되는 간결한 내부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방의 기능에 있어서도 위계질서¹⁷⁾를 갖고 있는 점도 유사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즉 제주건축에서는 「큰구들」과 「작은 구들」이 방의 위치와 크기에 의해 위계를 갖는(그림 16), 반면 오끼나와전통주거는 表座¹⁸⁾와 裏座로 구분, 즉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으로 구획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 제주전통주거는 주요생활공간인 상방을 사이에 두고 사적공간이 배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고팡, 챗방과 같은 공적공간과 함께 혼재되어 있는 형태이고 오끼나와전통주거는 공적부분인 表座¹⁹⁾와 사적부분인 裏座로 확실히 구획하고 있다는 점이 구별되는 점이다(그림 17).

17) 신분에 따른 공간구조와 규모인데 주인의 신분에 따라 평면공간구성에 차이를 보이는 육지부와는 달리 제주의 주택은 초가와 와가의 차이, 마감재료의 차이는 있으나 주인의 신분에 따라 거의 유사한 평면공간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공동체의 동질성을 반영하는 도서문화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8) 番座는 밝고 개방적인 공간(공적 공간)이지만 裏座는 폐쇄적이고 개구부가 적으며 가늘고 협소한 공간(사적 공간)이다.

19) 一番座는 손님을 맞이하는 격식있는 방으로 남쪽에 면한다. 二番座는 중앙에 위치하여 남쪽에 면하는데 불단(佛壇)을 두는 방이다. 三番座는 차실(茶室)로서 사용되어진다. 저녁식사는 취사방이 아니라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一番裏座는 젊은 부부 혹은 남자 애의 공부방에 해당된다. 二番裏座는 주인부부의 침실로 사용하던가 여자 애의 방에 해당된다. 三番裏座는 노인침실에 해당되며 북서쪽 구석에 화로(火爐;いろり)를 가 설치되어 난방 혹은 더운 물을 끓이는데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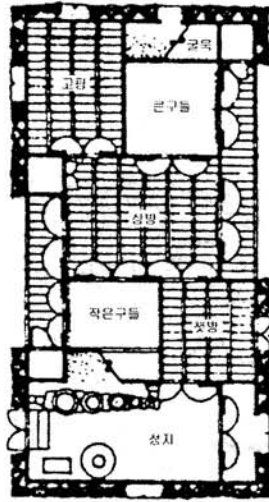


그림 25. 제주전통주거의 안거리 평면
(출처: 제주도, 제주도민속자료, 1987,p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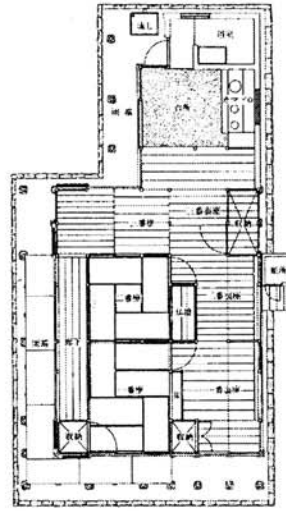


그림 26. 오키나와전통주거의 주
건물평면(출처:建築思潮研究所、
南島・沖縄の建築文化、建築資料研
究社、1991,p191)(그림12의 배
치도의 주거와 동일함)

둘째, 식사공간이다.

제주전통주거에서의 「챗방」은 밥상을 차리고 식사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지칭하는 말로서 취식분리(飮食分離)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챗방」의 위치에서 알 수 있듯이 주부의 주요 가사공간인 「정지」(부엌)와 안식공간인 「상방」(마루) 사이의 연결공간에 놓여지는 일종의 중간적인 성격을 지닌 공간으로 제주전통주거공간의 특징이다.

무더운 오키나와의 기후적 특성상 난방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굴묵」과 같은 기능은 없으나 취사공간인 「정지」(부엌)에 근접하여 일정규모의 마루(板間)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식사와 가족의 단란한 장소가 된다. 이는 제주전통주거의 「챗방」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유사성이 엿보인다.

셋째, 건물형식이다.

「안거리」와 「밖거리」에 의한 대칭적인 배치구조의 제주도와 달리 오키나와 주택은 분동(分棟)형 주거, 즉 마루바닥(床)을 깔 거주부분과 흙바닥(土間)인 취사부분이 별도의 건물로 구성되지만 이 두 부분을 합쳐서 하나의 주거로서 기능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17). 이는 기후풍토에 의한 편리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거주부분과 취사부분이 하나의 건물속에 구성되어 있다는 점의 유사성을 엿볼수 있다.

다만 구별되는 부분은 제주의 경우 취사(炊事)와 난방(暖房)이 분리되어 「정지」(부엌)와 「굴묵」(난방을 위해 불을 지피는 곳)의 공간으로 분할되어 효율적인 공간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3. 거센 바람이 만들어낸 주거의 특징

3-1 부지의 경계와 가옥과의 관계

제주전통주택에서 부지를 둘러싼 돌담에는 단순히 부지의 경계를 구분하는 기능 이외에 자연의 위력에 맞서기 위한 삶의 지혜가 가득히 숨겨져 있다.

첫째, 돌담의 바람구멍이다.

인공적인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담쌓기 구조물이기 때문에 돌담에는 당연히 엷히고 설킨 돌과 돌 사이에 빈틈이 생기게 된다(그림 18). 이 빈틈이 돌담을 견실하게 지탱하게 하는 비밀장치라고 할 수 있다. 즉 큰 돌과 작은 돌로 엷히고설킨 제주 돌담 사이의 빈틈은 일종의 개구부와 같은 기능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제주 돌담의 빈틈은 단순히 자연석에 의해 생긴 의미 없는 공간이 아니라 바람이 통과하게 만든 이유 있는 구멍이다. 아무리 거세게 불어오는 태풍이라고 해도 이 구멍을 통해 바람이 통과됨으로



그림 27. 엷히고 설킨 형태의 제주 돌담

써 돌담 벽면에 생기는 힘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돌담 벽에 생기는 나머지 힘은 돌 자체의 무게로 버틸 수 있는 역학적 메커니즘을 지닌 첨단기술인 것이다.

둘째, 가옥의 형태이다.

초가지붕과 돌담의 미학적, 역학적 기능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즉 제주의 초가지붕은 육지 마을의 초가지붕과는 다른 형태를 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초가지붕의 형태가 다르겠으나 대체로 육지의 초가는 지붕의 4면이 구분이 비교적 뚜렷하고 지붕 기울기는 약 40°이다(그림 19). 반면 제주의 초가지붕은 굽은 새(芽)줄로 엷어매었고 모임지붕 같지만 실은 모임지붕이 아닌 4면의 형태만을 겨우 알 수 있을 정도로 둥근 형태이다. 지붕의 기울기도 약 30° 정도로 상당히 완만한 지붕모양을 하고 있어서 거세게 부는 바람의 힘을 가능한 한 적게 받으며 바람이 자연스럽게 흘러 빠져 나갈 수 있다(그림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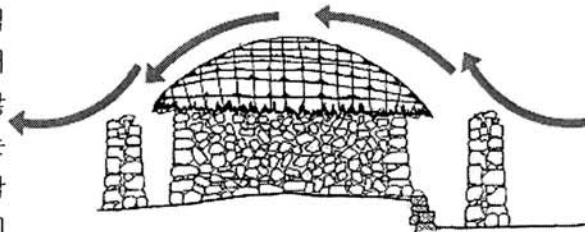
그림 19. 전통적인 한국의 초가집
(전남 나주군 다도면 소재)
(출처 : 김홍식·박태순·임재민(1995), 한국기층문화의 탐구4 「초가」, 열화당)



그림 20. 완만한 곡선의 제주 초가지붕

셋째, 돌담과 초가지붕의 위치다. 제주민가는 돌담과 초가 사이에 빈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접 배치해 돌담과 초가벽체가 거의 일체화된 형태이다.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 일부는 돌담의 빈틈을 통과하고 나머지는 돌담을 넘어가는데, 이 바람이 완만한 초가지붕을 타고

다시 스쳐지나 가게 되는 것이다(그림 21). 다시 말하면 돌담을 타고 넘어 들어오는 바람이 초가지붕의 벽면에 닿지 않도록 함으로서 초가의 외벽에 가해지는 바람의 힘을 최소화하고 한편으로는 돌담 뒷면에 바람이 휘몰아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참으로 고도의 역학구조를 그림 21. 돌담과 초가지붕의 관계. 돌담과 초가지붕이 거의 일체화되어 있어 돌담을 넘어선 바람이 다시 뒷면을 휘몰아치지 않고 초가지붕을 따라 흘러가게 된다.

오끼나와 주택의 경우도 강한 바람에 대응하기 위한 삶의 지혜를 엿볼수 있다. 오끼나와 전통주거의 돌담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며 축조방식에 있어서도 산호석회암(サンゴ石灰岩)을 잘 가공하여 쌓은 돌담이기 때문에 자연히 바람의 저항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바람에 대응하는 장치물은 돌담보다는 부지주변을 따라 식재되어 있는 후쿠기(福木)가 중요한 방풍역할을 한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수목의 높이와 가옥의 높이, 그리고 부지의 크기가 적절해야 방풍림으로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부지의 크기가 클수록 수목과 가옥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방풍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끼나와에서는 외부공간구성과 방풍관계를 고려하여 1500m²이상의 부지는 방풍에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한다²⁰⁾.

제주전통주거에서 초가와 돌담의 거리에 의해 거센 바람을 막아내는 수법으로 작용하듯이 오끼나와전통주거에 있어서도 주건물과 수목과의 거리에 의해 방풍효과를 높이려는 수법은 상당히 유사성을 갖는 것이며 또한 지역건축의 특징을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3-2 바람과 가옥의 배치방향관계

바람은 취락위치 및 가옥의 배치 등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사례를 중심으로 바람과 가옥의 배치방향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제주의 경우 해안마을인 협재마을의 가옥배치를 살펴본다. 협재지역의 바람방향을 1997년-2001년동안 한림지역에서의 측정된 풍향별 관측횟수의 백분율을 조사한 결과(그림 22), 대체로 북, 북북서와 남동, 남남동 방향으로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1967년-1995년의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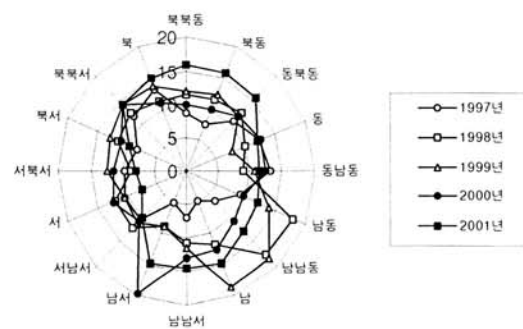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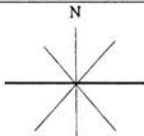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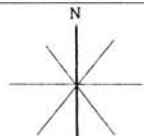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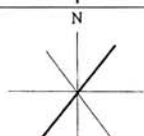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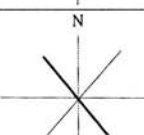


그림 22. 한림지역 풍향별 관측횟수의 백분율 (1997년-2001년) (출처: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연보」 1998년-2002년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것임)

20) 建築思潮研究所、南島・沖縄の建築文化、建築資料研究社、1991.p181

표 38 연도별 가옥 배치방향의 변화비교(1967년, 1985년, 1995년, 2002년)

방위		1967년	1985년	1995년	2002년	
가옥의 정면방향	가옥의 배치방향 (장축 방향)					
남-북 북-남		22	35	69	RC조	14
					조적조	4
					기타	
동-서 서-동		41	28	25	RC조	16
					조적조	8
					기타	
북서-남동 남동-북서		99	86	113	RC조	13
					조적조	4
					기타	
북동-남서 남서-북동		197	115	82	RC조	29
					조적조	9
					기타	
계		359	264	289		

가옥과 바람과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살펴본 결과²¹⁾(표 2), 가옥의 정면방향이 북동-남서(남서-북동)가 가장 많고 다음이 북서-남동(남동-북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협재마을의 가옥배치는 해안에 가깝게 위치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항상 강한 바람이 불고 풍향도 대체로 북, 북북서→남동, 남남동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것과 밀접한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즉, 북, 북북서→남동, 남남동 방향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대하여 가옥의 정면배치 방향을 북동-남서(남서-북동)로 두고 가옥의 측면을 바람방향으로 뒀으로서 측면에서 바람을 받도록 대응한 것이다.

1995년에는 오히려 북서-남동(남동-북서)의 배치방향에 있어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점차 철근 콘크리트(RC)조의 현대건축물이 늘어나면서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가옥을 배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고려한다면 제주의 해안지역과 중산간지역 마을에 따라 가옥배치 방향은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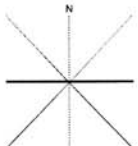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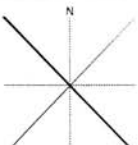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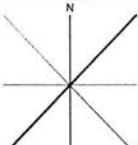
그러나 오끼나와의 경우는 평균풍향이 남남동이기 때문에 공적인 공간인 表座를 남남동으로 배치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다²²⁾. 이는 풍수지리에 입각하면서도 차갑고 강한 북쪽의 바람을 숲으로 막도 또한 적절한 수자원을 제공하며 남향이 기본적으로 일조와 위생적으로도 유리

21) 항공사진을 확대하여 가옥의 출입구와 부지의 경계를 파악함으로써 가옥의 정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나 확대된 항공사진의 정확성이 떨어져 분석 작업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 대략적인 가옥의 배치정도는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가옥이 배치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었다.

22) 建築思潮研究所、南島・沖縄の建築文化、建築資料研究社、1991.p190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9. 중산간 마을인 덕천리마을의 가옥 배치방향 비교

방위		상덕천	하덕천
가옥의 배치방향 (장축방향)	가옥의 정면방향		
	남-북 북-남	26	58
	동-서 서-동	14	55
	북서-남동 남동-북서	19	34
	북동-남서 남서-북동	5	13
합계		64	160

3-3 처마, 풍채와 雨端(アマハジ)

제주도 민가(民家)의 돌담 높이는 165cm로 내륙지방의 139cm 보다는 평균 26cm 높은 편이고 또한, 기단의 높이에 있어서도 내륙지방에 비하여 평균 37cm 정도 낮아²³⁾ 실질적으로는 돌담의 높이가 더욱 높아지게 되어 주거공간은 외부에 대해서 폐쇄적이게 된다(그림 1-2). 이는 풍해(風害)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바람과 관련된 것 중에는 벽체와 풍채(風遮)를 들 수 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 목구조의 벽체가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외벽에 현무암을 쌓아 이중벽체를 구성함으로써 주택의 주요구조물을 보호하는 구조기능과 아울러 벽체의 중후한 느낌을 갖게 하는 의장적인 기능도 갖게 되었다. 아울러 이중벽체와 비레감을 갖기 위해 처마를 길게 내밀게 됨으로서 비바람으로부터의 보호기능을 더욱 높일 수 있었다(그림 23의 왼쪽사진 참조).

특히 풍채(風遮)는 상방(床房 : 마루) 처마에 설치되는 것으로 각목으로 뼈대를 짰 뒤에 그 위에 새를 얹어 만들며 단순히 차양(遮陽)기능뿐만 아니라, 비바람이 칠 때 풍채를 내려서 막고 햇빛이 비칠 때는 올려서 상방(上房)에 뜨거운 햇살이 비치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다(그림 23의 오른쪽 사진 참조).

23) 김미령·조성기(1998), 제주도의 기후적 환경이 민가 형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권1호, 통권 111호, pp.221-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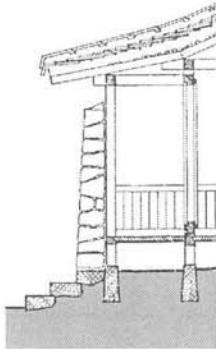


그림 23. 비바람에 대응하기 위해 벽체는 이중벽체로 구성되고 처마를 길게 내밀어 피해를 줄이려는 지혜를 엿볼수 있다(왼쪽). 또한 정면에는 거센 비바람 혹은 강한 햇살이 실내로 들어오는 막아주는 풍채는 독특한 건축장치물이자 특징적인 요소이다(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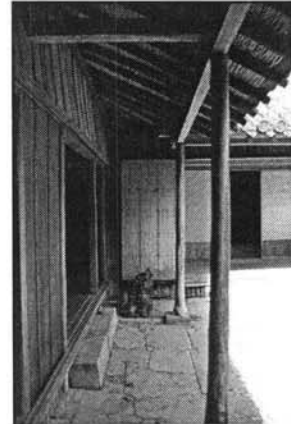


그림 24. 주건물의 벽에서 길게 내민 처마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인 雨端(アマハジ)

오끼나와 전통주거에도 풍채의 기능과 유사한 것이 雨端(アマハジ)이다. 원래의 형태는 강한 바람에 견디도록 雨端(アマハジ)의 기둥과 튼튼한 구조체로 하여 위에 기와를 올림으로서 주건물의 지붕과 함께 일종의 이중지붕형태였으나 주건물의 지붕을 雨端(アマハジ)까지 이어져 기둥과 보(梁)도 튼튼한 것으로 하여 연결된 것이 일반적이다. 주건물의 벽에서 길게 내민 처마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인 雨端(アマハジ)이 강한 바람에 의한 비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거나 강한 햇빛의 실내 유입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그림 24).

제주의 풍채와 오끼나와의 雨端(アマハジ)도 가동성(可動性), 고정성(固定性)이라는 차이점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비바람에 대응하는 건축적 장치물이라는 유사성을 갖는다고 할수 있다.

맺으며

이상으로 제주전통주거와 오끼나와전통주거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형성의 영향요인이다. 오끼나와주거는 풍수지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으나 제주주거는 풍수지리 요인보다는 기후와 지형적인 요인에 의한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둘째, 신분계층에 따른 제약의 유무이다. 오끼나와는 풍수지리의 영향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정치제도에 의해 신분에 따라 부지와 건축의 규모에 제한을 두어 차별성이 있다. 제주의 경우 신분계층에 따라 재료등에 차이는 있으나 크게 사치스러움이 없고 주거공간에 있어서도 거의 같은 평면구조를 하고 있는 등 동질성이 있다.

셋째, 가옥배치에 영향을 주는 택지분할의 형태이다. 제주의 경우 풍수지리의 요소를 고려하면서도 기후와 지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가옥배치를 결정하고 부지경계를 결정함으로써 부지형태가 자유롭다. 풍수지리적 영향을 받으면서도 편리성에 의해 정방형의 균질한 부지형태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마을경관 역시 색다르게 연출되는 것이다.

넷째, 외부와 내부의 개방성과 폐쇄성이다. 제주전통주거는 외부에서 내부로의 진입시 폐쇄적이면서도 내부공간은 개방적인 성격이 강하다. 즉 돌담으로 인해 주거 안쪽을 들여다보기 어려우나 내부공간은 개방성이 강하다. 반면 오끼나와전통주거는 외부에서 내부로의 진입시 개방성이 강하다.

다섯째, 가옥의 배치와 부지내 외부공간 구성이다. 제주전통주거는 안거리와 밖거리가 대칭

적인 구조를 갖고 부지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배치되어 부지내 외부공간이 비정형적인 특징이 있다. 그러나 오끼나와전통주거는 출입문의 축(軸)상에 주건물(主屋)을 놓이게 하고 「힌푼(ヒンブン)」과 부속건물로 부지내 외부공간을 구획하는 수법을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부공간은 일정부분 정형화되는 특징이 있다. 한편 외부공간의 구성요소 중 전정(前庭)과 후정(後庭)의 공간, 특히 「통시」와 「豚舎(フ-ル)」, 「우영」과 「畑(はたけ)」 등은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제주와 오끼나와 주거에서의 유사성을 엿볼수 있는 부분이다.

여섯째, 주거의 평면구성이다. 제주전통주거는 「큰구들」과 「고팡」이 기준이 되어 분할되는 형태이며 공적공간인 상방을 중심으로 좌우에 생활공간이 배치되며 위계를 갖는다. 반면 오끼나와전통주거는 表座와 裏座로 구분, 즉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으로 구획되며 表座와 裏座에서 위계를 갖는 등 내부공간에 있어서 위계를 갖는 유사성도 엿보인다.

일곱째, 바람에 대응하는 수법이다. 제주전통주거에서는 부지경계를 높은 돌담을 쌓고 가옥과의 관계를 통해 거센 바람에 대응했다. 오끼나와전통주거에서는 부지주변의 수목(樹木)과 가옥배치를 통해 대응하였는데 이점 역시 수법상의 유사성을 엿볼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처마, 풍채와 雨端(アマハジ)와 같은 건축적 장치물의 이용수법도 유사하다고 할수 있다.

지역의 기후풍토에 대응하면서 쾌적한 주거공간을 만들기 위한 삶의 지혜가 담긴 주거는 문화로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부분이다. 굳이 유사성의 유무에 다른 동질감의 문제를 떠나서 주어진 자연환경에 가장 효율적이며 생산적으로 대응하며 살아왔던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제주전통주거와 오끼나와전통주거의 특징을 정리해 봄으로서 어떠한 삶의 지혜가 담겨있는지 그것이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새롭게 적용해 보기 위한 작업으로 의미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개발과정을 거치면서 제주의 전통건축이 사라져 가면서 주생활 그 자체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초가와 와가를 대신하여 철근콘크리트조의 고층아파트가 자리매김하고 있고 울안의 가족공동체적인 성격이나 이웃간의 교류관계가 열어져 가면서 변화된 생활공간 만큼이나 사람들의 의식(衣食)변화와 가치관도 변해 가고 있다.

한라산을 배경으로 나지막하고 웅기중기 군집(群集)을 이룬 마을모습, 완만한 곡선과 높은 담장의 집들의 풍경, 대화의 장소이기도 하고 휴식의 공간이기도 하였던 마을 입구에 자리잡은 팽나무, 포제단 등등 탐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삶의 공간과 흔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라져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제주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오끼나와 역시 같은 현상을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21세기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독창성과 개성성이 강조되는 시대이다. 가장 지방적인 건축이야말로 가장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문화이고 세계적인 문화인 것이다. 국제적인 판광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각 지역의 고유문화 형성에 시각을 맞춘 건축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미령·조성기, 제주도의 기후적 환경이 민가 형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4권1호, 통권 III호, 1998
- 김석윤, 19세기 제주도 민가의 변용과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김태일, 제주건축의 맥,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5
- 김태일, 제주건축:Jeju Architecture(영문판), 제주대학교출판부, 2008
- 김태일, 제주도시건축을 이야기하다, 제주대학교출판부, 2008
- 김홍식·박태순·임재민, 한국기층문화의 탐구4「초가」, 열화당, 1995
- 이연숙, 한국인의 삶과 미래주택,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 아모스 라포포트, 이규목 역, 주거형태와 문화, 열화당, 1985
- 제주특별자치도, (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 유네스코 제주 세계자연유산마을 덕천리편, 2010
- 제주도, 제주도지 제1권, 1993
- 제주도, 제주건축의 향토성 개념정립과 보급 확대방안 연구, 1987
- 제주도, 제주도민속자료, 1987
- 泉 靖一, 泉靖一著作集1 フィールド・ワークの記録(1), 讀賣新聞社, 1972
- 建築思潮研究所、南島・沖縄の建築文化、建築資料研究社、1991
- 坂本磐雄、沖縄の集落景觀、九州大學出版會、1997